

보도자료

보도 희망일	즉시 보도		
배포일	2022. 9. 20.(화)	홍보담당	기획처 홍보팀(880-9072, 5054)
담당기관	아시아연구소 아시아-아프리카센터	문의	오예림 (880-2080)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아시아-아프리카센터
‘아시아-아프리카센터 주한 탄자니아 대사 초청 강연’ (9월 22일)

-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소장 박수진 교수) 아시아-아프리카센터는 한국-탄자니아 수교 30주년 및 줄리어스 니에레레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여 9월 22일(목) 주한 탄자니아 대사 초청 강연(오후 2시-3시 30분)을 개최한다. 강연의 사회자는 아시아-아프리카센터장인 서울대 국제대학원 김태균 교수가 맡는다.

- 서울대 아시아-아프리카센터는 아프리카에 관한 보편성과 특수성을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융합적 연구를 지향하며, 기존의 서구 중심적 시각의 아프리카 연구를 넘어 한국과 아프리카의 관점을 상호 동등하게 이해하는 종합적인 아프리카 전문 연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2022년 3월 설립되었다.

- 강연자인 토골라니 에드리스 마부라(Togolani Edriss Mavura) 주한 탄자니아 대사는 리비아 아프리카 연합 고위 대표, Global Ambassador for Immunization (GAVI), Financing for Global Education Opportunity 교육위원회 의원, Scale Up Nutrition (SUN) 고위급(the UN High Level Group) 그룹 회원, 영국 세이브 더 칠드런(Save the Children) 아프리카 자문위원회원 등 다양한 직위를 역임해왔으며, 현재는 주한 탄자니아 대사로서 활동하고 있다.

□ 이번 강연 주제는 ‘Forging De-ethnicized National Identity (Utanania): A Great Contribution Made by Mwalimu Julius Kambarage Nyerere’ 로 독립 후 탄자니아의 정치적 안정에 큰 역할을 한 줄리어스 니에레레의 정치적 사상을 고찰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 이번 강연의 중심인물인 줄리어스 캄바라게 니에레레는 탄자니아의 초대 대통령으로, 다양한 민족을 통합하는 탄자니아 국민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는 ‘우자마(Ujamaa)’ 와 같은 아프리카식 사회주의를 제안했다. 여러 논란 속에서도 탄자니아의 민족 통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탄자니아의 국부로 여겨지고 있으며, 그의 기일인 10월 14일을 ‘니에레레 선생님의 날(Mwalimu Nyerere Day)’ 로 지정하였다.

□ 강연은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영원홀(210호)에서 대면으로 진행되며, 참가를 원하는 시민은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